

# 동네



2001.10

# 창간호

발行者  
總聯千葉支部

住所 〒260-0001 千葉市中央区都町2-17-1  
TEL 043-233-6561 FAX 043-233-6532  
E-mail sourenchiba@hotmail.com



화목하고  
유족하고  
힘 있는  
동포사회를!

## 총련지부관하 기관지 발간에 즈음하여

지부지부관하 동포여러분!

지난 7월 1일에 열렸던 총련지부, 지역상공회, 녀성동맹, 조청의 합동정기대회이후 벌써 4개월이 지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저희들은 동포들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총련제19차전체대회방침에 따라 새 세기의 요구와 동포들의 지향에 맞게 지부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승과 창조를 구호로 사업을 벌려왔습니다.

몇달간의 사업과정을 통하여 저희들은 총련결성 이래의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동포들의 애국심과 조직을 위한 마음은 끝이 없다는 것을 통감하였고 그러한 동포들을 위하여 더욱 일을 잘 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련지부에서는 일본사회의 급격한 정보화와 특히 마스크미의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에 대처하며 또 지역에 발붙인 정보지를 발간함으로써 지부지부관하 동포들의 각종 소식을 재빨리 알리며 나아가서 길동무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수행하고자 이번에 정보지 《동네》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어리기에 부족한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동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려 참신하고 새 맛이 나는 정보지를 만들어나갈것입니다.

동포여러분들께서 애독해주시기 바랍니다.

トンポ ヨロブン!

7月1日に開かれた定期大会から、はや4ヶ月が過ぎようとしています。

この間支部イルクン達は総聯結成以来の困難な状況が続く中で活動をしながら様々な事を学んでまいりました。

特に同胞の愛国心と総聯組織に対する愛着を肌で感じ、このような同胞の為により一層頑張らなければと決意を新たにしました。

この度、支部では地域で起こった色々な出来事や、時事などを的確に紹介するため地域情報紙を発行するのはこびになりました。

これからこの情報紙が千葉支部同胞ネットワークを作る上で重要な役割を担えたら、これほど嬉しいことはありません。

トンポ ヨロブンのご意見をお待ちし愛読して下さる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同胞の力を結集し、「ハナ(仮称)信用組合」を設立しましょう。

これからはすべての同胞世帯が金額の大小にかかわらず十一月末まで新しい民族金融機関設立の為、出資金拠出にご協力お願いします。



尚、十月二十日現在、千葉地域の出資金目標額三億三千万円の70%を上回る金額の引受書を準備委員会が受けた事を報告します。

その後運動は急速な広がりを見せ第二回目の説明会(九月二十七日午後二時(県本部講堂)では地域準備委員会のメンバーを紹介し大衆運動に発展する様相になってきました。

説明会では設立過程の経過報告、質疑応答の後、近い内に千葉地域準備委員会を作る事が全員一致で承認されました。

千葉地域では経済情勢が相変わらず好転しない中、県準備委員会と地域商工会が一丸となり運動を繰り広げ説明会を開き六十四人の同胞が参加しました。

立する為の発起人代表記者会見後、千葉県でも八月八日に県準備委員会を発足し運動が本格化してきました。



トンポヨロブンもご存じのように去る七月十日、新しい民族金融機関(仮称ハナ信用組合)を設立する為の発起人代表記者会見後、千葉県でも八月八日に県準備委員会を発足し運動が本格化してきました。

**조국해방53주년을 뜻깊게 맞이한 행사**  
 祖国解放五十三周年をみんなて祝う!

지난 8월 4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불구하고 조국광복절을 축하하기 위하여 140여명의 동포들이 총련본부 강당에 모였습니다.

모임은 홍창수선수의 조국방문기 비데오상영과 축하연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상공회와 여성동맹은 비롯한 여러 기관과 동포들의 협력으로 준비한 음식은 밥상우를 짝 차려졌습니다.

오락모임에서는 전체동포들이 참가하여 진행된 '들과보검, 노래강사'



인강준미동무가 사회를 맡아 해바라기소조와 청상회동무들의 노래가 피로되었습니다.

특히 안경일지역상공회리사장의 노래는 온 장내를 감동케 하였습니니다.

이번 모임은 젊은 동포들이 많이 모인 축하행사로 되었습니다.



**즐거움 여름방학**

8월 1일부터 8일에 걸쳐 금년도 夏期學校가 開校되었습니다.

하기학교에는 10명의 어린이들이 參加하였으며 實習으로 東京中高 2학년생 7명이 先生으로되어 우리 말과 글, 노래와 춤을 배워주었습니다.

8일에는 千葉學校에서 合同終業式이 進行되어 하기학교에서 배운 노래와 춤을 披露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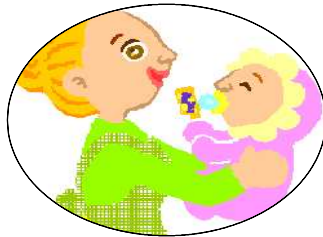
千葉県下 우리 어머니와 어린이들의 Festa  
**<우리 우리 모여라 1, 2, 3!!> 大盛況**

지난 9월 9일 300여명에 달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여들어 어린이들의 遊戯、運動會 등으로 흥겹고 유쾌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갓난 애기나 學齡前어린이를 키우느라 일상시 바쁜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이 날엔 오래간만에 옛 친구나 우리 同胞들과 만난 따뜻한 교류마당으로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린이들이 人氣者 <アンパンマン>과의 <샘세기공부>나 우리 노래에 맞춘 體操와 遊戯의 유쾌한 세계에 끌려가 몸을 저절로

움직이고 서로 손잡아 하나의 큰 원을 만들었으며 운동회에서는 엄마, 아빠와 함께 마음껏 뛰놀며 지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하며 天真爛漫하게 춤추며 노는 어린이들의 웃음은 부모님들과 참가한 어른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未來를 위한 일에 함께 努力을 기울이자고 企画、準備、出演까지 우리 어머니들 자신의 힘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21世紀를 맞은 첫해를 더욱 빛내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층을 맞이해서 라후부위원장의 서거**



매국렬사 라후부위원장이 희생되여 이제 3년이 지나갔습니다.  
 총련지부에서는 라후부위원장을 추모하여 平和公園에서 추모모임을 조직하였습니다.  
 추모모임에는 60명 가까이 일꾼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습니다.

# 학교를 사랑하는 동포 학부모들

## 지바 학교차리티골프



10월11日 (木) 新千葉C・C에서 제7차차리티골프가 진행되었습니다. 180명이 참가한 이날 콤포에서 모인 차리티금을 지바학교 문강교장한테 전달하였습니다. (좌)

10월21日 (日) 지바학교 바자가 개최되었습니다. 어머니회와 여성동맹분회가 중심이 되어 준비한 상품은 모두 팔려 리득금을 학교에 회사하였습니다. (우)

## 지바 학교 바자



# 년 말까지의 행사 안내



## 지바 학교 예술 발표회

11月18日 (日)

## 총련, 녀맹분회 총회와 송년회

11月末~12月



## 현청상회문화공연 <우리의 미래>

12月2日 (日)

## 축 결혼

김일현동무 (市原分会)  
김종호부위원장 장남  
김영숙동무

9월23일 (일) 幕張プリンス호텔에서 성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량인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 店 名

【業種】 焼肉  
【住所】 千葉市中央区都町  
【電話】 043-×××-1129  
【特徴】 味は千葉一 駅から徒歩2分  
【おすすめ品】 テグタンスープ



同胞たちに地域の情報を提供するために発刊される情報紙を作るうえで諸費用にご協力お願い申し上げます。

【内容】  
1 サイズ一万円 (左参照)  
その他支部のホームページ (年末に開設予定) に3ヶ月間掲載します。  
ホームページのみ可 (6ヶ月間)

## 広告の募集